

열린 검색 서비스 1년

한성숙 엠파스 검색사업본부 상무

“좋은 정보 원한다면 엠파스를 클릭하세요”

엠파스의 열린 검색 서비스가 시작된 지 1년여가 지났다. 서비스 론칭 당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지만, 열린 검색 서비스는 엠파스가 올해 1, 2분기 연속 흑자를 달성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다. 엠파스에서 검색사업본부를 책임지고 있는 한성숙 상무는 “열린 검색이 날로 치열해지는 검색 서비스 시장에서 엄청난 파괴력을 선보였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검색 서비스 부문에서 엠파스를 중요한 포털로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며 의의를 설명했다.

포털 업체들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엠파스의 이러한 선전은 업계에서도 매우 고무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포털 업체들이 검색 서비스에 올인 하면서 경쟁이 더욱 치열한 지금, 엠파스도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서비스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공공기관과의 제휴도 검색 서비스 강화의 일환으로 엠파스가 역점을 두고 있는 부분. 최근 엠파스는 공공기관과 잇따른 제휴를 맺고 콘텐츠 차별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한 상무는 “인터넷상에서 검색되는 DB는 대부분 비슷 비슷해서 사용자들이 보기에 별 차이가 없다”고 지적하며 “그런 면에 있어서 차별화된 DB확보를 위해 공공기관의 DB가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엠파스는 그동안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행정자치부 G4C 사업단,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한국문화도서관,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등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들과 제휴를 지속적으로 맺으며 양질의 콘텐츠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지식 검색이나 블로그, 뉴스를 보면 백이면 백, 천이면 천 똑같은 DB가 생성되는데, 이는 인터넷상의 무분별한 품질 때문이다. DB의 출처나 종류가 더 다양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하며 “향후에도 고품질의 전문 콘텐츠 확보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인터넷의 화두로 등장한 웹 2.0, UCC와 연계된 서비스에 대해서도 한 상무는 “개방과 참여란 관점에서 본다면 국내에서 UCC는 오래됐다”며 “그러나 웹 2.0 서비스가 기업의 수익과 연결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하며, 유행을 쫓는 서비스 개발은 지양할 것이라고 밝혔다.

열린 검색, 동영상 검색 등 새로운 서비스를 타 업체보다 한 발 앞서 선보이며, 검색 서비스 시장에서 탄탄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는 엠파스는 천천히, 그러나 좀 더 멀리 보는 전략을 취할 계획이다. 한 상무는 “검색 서비스 시장은 단기간 경쟁이 아닌 적어도 3~4년 후를 내다보고 대비해야 하는 시장이다. 지식 검색이 현재 시장의 주류로 자리 잡고 있지만, 2007년쯤 되면 이 시장에도 조금씩 변화의 조짐이 일어날 것”이라며 엠파스를 관심 있게 지켜봐 달라고 주문했다.

글 박현수 기자 사진 이혜성 기자

